



이스라엘의 고통은 세계의 기쁨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7월 17일

유죄 선고를 받은 싸미르 쿤타르 Samir Kuntar 외 4명의 테러리스트들은 죽은 이스라엘 병사 둘의 시체와 교환되어 레바논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다드 레게브 Eldad Regev 와 우디 골드바세르 Udi Goldvasser 는 제 2차 레바논 전쟁 초반에 납치되었습니다. 쿤타르는 레바논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며, 술레이만 Suleiman 대통령, 시니오라 Seniora 총리 등 정치-종교계 인사들의 환영 속에 귀환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Hassan Nasrallah 는 이것을 새로운 승리의 시대의 기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쿤타르 본인은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예디옛트 Yediot〉의 시마 카드몬 Sima Kadmon 기자: 어제 오전 9시 41분, 온 이스라엘은 엘다드와 우디의 관이 내려지는 것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들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알았고, 들었고, 충분히 경고도 받았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비탄이었다. 이 얼마나 슬픈 날인가! 우리 모두는, 큰 가족으로서 식구를 잃은 것에 다름 없다.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가! 어린이를 살해한 이가 돌아간 레바논에서 벌어진 환희의 향연을 보며 우리는 완벽한 인간성의 부재를 목격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두 병사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되었다.

〈제루살렘 포스트 Jerusalem Post〉: 1979년, 쿤타르와 3명의 무장 테러리스트들은 레바논에서부터 작은 고무 보트를 타고 나하리야 (이스라엘 북부 해안에 위치)로 쳐들어 왔다. 그들은 그 곳에서 마주친 경찰들을 죽였고, 대니 하란 Danny Haran 의 아파트를 습격하여 대니와 4살 짜리 딸 에이나트를 건물 아래 바닷가로 끌고가 살해했다.

〈마아리브 Ma' ariv〉가 묘사한 1979년 사건: 대니 하란을 의사시킨 쿤타르는 시선을 4살짜리 소녀에게 돌렸다. 그는 총을 취해 그 유아의 목에 걸더니, 땅에 짚어버렸다. 그러더니 아이를 가장 가까운 바위로 질질 끌고 갔다. 에이나트는 본능적으로 팔로 머리를 감쌌다. 쿤타르가 팔을 치워버렸고, 개머리판으로 아이의 머리를 두들겨 패고는 몸을 짓밟았다. 결국 아이의 입과 귀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다. 쿤타르는 아이의 두개골이 부서질 때까지 아이를 폭행했다 (위키피디아).

〈예디오트〉의 우디 아우르바크 Udi Aurbach 기자 (레바논 사람들에게 보낸 공개 편지): 이스라엘은 당신들과 국경 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리 분쟁은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족의 고통으로 얻어낸 “승리”를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를 한 번 더 꿈꾼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번 소위 승리라 할만한 것에 도취돼 깨닫지 못하겠지만, 광신 캉파 집단 헤즈볼라와 식인종 같은 헤즈볼라의 지도자 셰이크 나스랄라가 당신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슬픈 날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자제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란의 정신 나간 창 끝을 막는 유대 국가의 방어벽에 대하여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국경을 넘어 돌아왔지만 (렘 31), 당신들에게 돌아간 것은 유아 살해범입니다. 비통함 가운데 우리는 시신을 전해 받았지만, 괴물을 건네 받은 당신들은 뭘 듯이 기뻐하고 있군요. 이 차이를 보고 깨달으십시오.

cNN 은 기뻐하는 베이루트의 풍경을 방송하면서, 거대한 전광판에 “이스라엘의 아픔은 레바논의 기쁨이다”라고 쓰여진 문구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레바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저는 레바논 전역에 헤즈볼라에 대항하는 반발이 지하로부터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베이루트의 특파원 리 스미스 Lee Smith 는 〈마아리브〉에 이러한 독점 기사를 실었습니다. 레바논 거주민 전부가 이 축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시아파 젊은 여성은 “이 잔치는 내게 충격입니다. 레바논의 어떤 사회적 정신 분열증이나 이중 윤리 기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침묵할 것을 선택했지만, 대외적 반응에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있다. 베이루트의 기독교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들은 이 행사를 아예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수니파의 다수도 충격을 받았고, 시니오라 총리가 나스랄라를 묵인하고 쿤타르를 영웅 취급하는 것에 격분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확언하건대, 시아파 중에 이 행사에 분노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매국노 낙인을 받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죠.”

오늘날 세계는 세 개의 무리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고통 앞에 헤즈볼라와 더불어 기뻐하는 이들이고, 하나는 침묵하는 이들이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슬픔으로 함께 슬퍼하는 이들입니다. 예수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싸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 16:20).”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더 깊은 연합과 침착함, 확신, 결단력, 긍휼과 정직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선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국가들에게 거치는 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윤리적 시험이자 구획선입니다 (슥 12:3). 세상은 십자가 사건 때 예수아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에 부활하사 이스라엘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지금처럼 국제 언론과 이슬람 지하드가 조롱하는 때,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 사명과 영적 각성을 위해 준비되어가고 있습니다.

번역: 고병현
Shaul Byunghyun Go